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수립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Formulation of Missions and Visions in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곽 동 철 (Dong-Chul, Kwack)**

< 목 차 >

- | | |
|----------------------------|----------------------------|
| 1. 서론 | |
| 2.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 2.2.4 문화부 소속의 국립중앙도서관 조직구조 |
| 2.1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의 변화 추이 | 3. 선진국 국가대표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
| 2.2 국립중앙도서관 조직구조의 변천 | 4.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의 재정립 |
| 2.2.1 일제치하 총독부도서관 조직구조 | 4.1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및 전략 |
| 2.2.2 미군정기 국립도서관 조직구조 | 4.2 국립중앙도서관 사명과 비전의 수립 |
| 2.2.3 문교부 소속의 국립중앙도서관 조직구조 | 5. 결론 |

초 록

본 연구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의 수립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둘째 선진국의 국가대표도서관들의 사명과 역할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들은 국가대표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 무엇을 권고하고 있는지를 살펴봄, 셋째,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지식정보사회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그 사명과 역할을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사명, 비전, 기획, 도서관경영, 경영전략, 정보정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appropriate strategies for establishing the mission and roles of National Central Library. For this purpose, examined are the following aspects: (1) how and by whom the mission and roles of National Central Library have been defined, and what are included; (2) what are the missions and roles taken by its counterparts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recommend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3) how National Central Library, as the center of national information resources, can be further committed and developed to be the key institution in the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by re-evaluating and establishing its roles and mission.

Key Words : mission, vision, planning, library management, information policy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청주대학교의 학술연구조성비(일반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인문학부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 (kwackdc@chongju.ac.kr)

·접수일 : 2004. 8. 26 ·최초심사일 : 2004. 9. 1 ·최종심사일 : 2004. 9. 1

1. 서론

국립중앙도서관은 해방과 함께 1945년 10월 15일 오전 9시 ‘국립도서관’으로 개관되었다. 금년이 국립중앙도서관의 개관 59주년을 맞는 해이다. 이와 더불어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장 장서가 500만책을 돌파하는 해이기도 하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원을 비롯한 모든 도서관계 구성원들이 축하해야 할 일이다. 더욱이 국립중앙도서관은 개관 초기에 불과 284,457 책의 장서 16 명의 직원, 383,926원의 예산을 갖고, 13,289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중소규모의 대학도서관이 지금과 같이 명실상부하게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상기하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도서관계 사람들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일을 축하하기 위해 함께 모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야 한다. 이는 지식정보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커다란 업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진 하나의 지식정보공단이 건립된 것이다. 선진국들은 국가대표 도서관이라는 지식정보공단은 물론이고 다양한 주제 분야의 지식정보공단을 육성하고 있다. 각각의 지식정보공단에는 많은 수의 지식정보공장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식정보의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단편적인 가치보다는 정보의 선정,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분석·조작·재편집 체계화에 의한 정보의 지식화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의 지식화 작업은 도서관의 핵심적인 기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늬만 지식정보사회를 외치고 있을 뿐 국제경쟁력 있는 콘텐츠 개발의 원천인 책과 독서 나아가 도서관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 잠시 국민의 정부 기간동안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반짝하였을 뿐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고품질의 지식정보를 생산할 지식정보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맞는지 아니면 갈아입어야 할 것인지 앞으로 변화하는 도서관 주변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함께하면서 축하연을 개최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 그 기능 및 역할을 조사·분석한 후,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한다.

둘째, 선진국 국가대표도서관들의 사명과 역할은 어떠한 내용인지. 국가대표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에 대한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들의 권고사항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중앙도서관이 무너만이 아닌 진정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지식 정보사회의 중추적 기관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그 사명과 역할의 수립 방안을 제시한다.

2.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2.1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의 변화 추이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은 전신인 조선총독부도서관에서부터 주요 단계별로 구분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창설은 1919년 한국인(윤익선 이범승)이 설립하여 운영한 경성도서관에 자극을 받았으며, 한편으로는 조선인의 사상 선도를 목적으로 1923년 11월에 개관하였다.¹⁾ 그 이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 도서관의 규정이나 운영방침 또는 직제와 기구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국립중앙도서관의 시기별 기능 및 역할

근거	기능 및 역할	비고
총독부도서관 사명(1924) 운영지침(1933)	(1) 특히 조선통치의 주요방침에 기초한 사상의 선도, 교육의 보급 산업의 진흥에 관한 신고(新古)도서를 모을 것 (2) 조선민족의 문헌을 수집할 것 (3) 광의에 있어서의 조선연구에 관한 화한양서(和漢洋書)를 수집할 것 (4) 전선(全鮮)에 대한 도서관 보급 발달을 도모하고 지도자가 될 것	사상선도기관 + 공공도서관
국립도서관 직제(1949) (1937)	[제1조] 도서 및 기록류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의 열람·참고에 공하며, 아울러 도서학에 관한 연구를 행한다	공공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1963)	[공공도서관의 기능] (1) 도서관자료를 수집, 정리, 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상의에 응하는 일 (2)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전시회 기타 행사를 주최하거나 장려하는 일 (3) 다른 공공도서관 또는 학교도서관이나 특수도서관과 협의하여 도서관자료를 상호 교류하는 일 (4) 도서관업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공공도서관 + 국립중앙도서관

1)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사(서울 : 동 도서관, 1973), pp.149-150.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3호)

		<p>[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p> <p>(1) 국가에 관한 문헌의 수집 및 보존 (2) 국내외서지의 작성 및 그 소개 (3) 도서관자료의 국제교류 (4) 도서관학에 대한 조사, 연구 (5) 타 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업무에 관한 지도 및 원조</p>	
국립중앙도서관	<p>도서관법 (1987, 전면개정)</p>	<p>[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p> <p>(1) 국내외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다른 도서관과의 정보자료의 유통 (3)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4)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정보협력망의 총괄 (5)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6) 다른 도서관에 대한 업무 및 사회교육활동의 지도·지원 (7)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8) 사서직원의 연수 (9)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기타] (1)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기타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주최 또는 장려 (2)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상호 협력한다.</p>	<p>국가대표도서관 + 공공도서관 + (국회도서관) *사회교육활동</p>
국립중앙도서관	<p>도서관진흥법 (1991)</p>	<p>[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p> <p>(1) 국내외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국내자료의 납본관리 (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4)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5)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통괄 (6)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7) 다른 도서관에 대한 업무·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지도·지원 (8)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9) 도서관직원에 대한 연수 (9)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기타] (1)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p>	<p>국가대표도서관 + (국회도서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p>
국립중앙도서관	<p>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1994)</p>	<p>[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p> <p>(1) 국내외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에의 이용 (2) 국내자료의 제출관리 (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4)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5)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총괄 (6)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7) 다른 도서관 및 문교의 업무·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지도·지원 (8)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9)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10) 도서관 및 문교의 직원에 대한 연수 (11)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기타] (1)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협력하여야 한다.</p>	<p>국가대표도서관 + 문교 + (국회도서관)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독서진흥</p>

조선총독부도서관의 사명은 1924년에 발표한 것으로서 약 10년 후인 1933년에 명시한 총독부 도서관의 운영지침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²⁾ 그 운영지침은 아래와 같이 사명의 우선순위만 달라질 뿐, 내용상 특이한 변화는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총독부도서관이 존속할 때까지 계속 도서관의 운영에 반영되었다. 즉, 조선총독부는 총독부도서관을 공공도서관 및 사상 선도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발휘하도록 운영한 것이다.³⁾

- (1) 조선민족의 내외고금의 문헌을 수집하여 이를 영구 보존할 것
- (2) 동아(東亞) 특히 조선연구에 필요한 화한양서를 수집할 것
- (3) 조선통치의 이념에 기초한 사상 선도 및 산업진흥에 관한 도서를 수집할 것
- (4) 전선(全鮮)의 도서관의 보급발달을 도모하고 그 지도자가 될 것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과 함께 조선총독부도서관을 인수하여, 그 해 10월에 국립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국립도서관은 미군정하에서의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체제정비와 운영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기울여 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은 1950년 6·25전쟁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그 이후 1963년 도서관법의 제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편될 때까지 전후 복구사업 및 체제정비에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뚜렷한 족적을 남기지는 못하였다. 이는 국립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부여받지 못하고 하나의 단순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963년 도서관법의 제정 및 공포로 국립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승격되었다. 그 대표적인 것은 국가서지의 작성 기능과 국내 타 도서관에 대한 지도 기능 등을 들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국내 도서관 환경이 열악하여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담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초기 경영 상황은 지금에 이르러서도 국가대표도서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지금도 위정자들이나 소관 행정부처에서 국립중앙도서관과 일반 공공도서관의 차이점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업무지시를 내려 보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은 전면 개정된 도서관법(1987년), 그리고 도서관진흥법(1991)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1994)의 제정에 따라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1991년 도서관진흥법의 제정·공포와 함께 법규상으로 부분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일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초월하여 명실상부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소속 행정부처가 1991년 4월 8일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변경

2) 김남석, “국립중앙도서관의 국가서지활동고,”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60주년 기념논문집(서울 : 동 도서관, 1984), p.13.

3) 박동철, 일제치하의 도서검열과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1986).

되었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측면에서는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것이었지만, 타 관종의 도서관 측면에서는 소관 행정부처의 이원화로 어정쩡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전체 도서관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즉, 우리 도서관계는 운영주체(초·중·고·대학, 교육청, 자치단체, 기관 및 단체)와 도서관(학교·대학 전문 특수도서관 및 문화관광부의 관계가 ‘대학과 대학병원 및 보건복지부’의 관계와 같이 발전 할 것을 기대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로 혼선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문화관광부의 추진업무가 그 성격상 진흥정책을 위주로 시행될 수밖에 없으므로 보건복지부와 같은 제재수단 등을 동원하는데 한계가 있거나 미약하기 때문일 것이다.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잇달아 제정 공포되면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의형상 크게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 그 법규적 기능 및 역할을 살펴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은 관련 조항들만 늘어났을 뿐 오히려 국가대표도서관이라는 고유성을 퇴색시키는 적지 않은 면을 갖고 있다. 이는 기존의 도서관진흥법에 ‘문고’ 및 ‘독서’ 관련 사항들이 추가되면서 혼선을 초래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시기에 국립중앙도서관은 다른 관종의 도서관에 대한 지도 및 지원이라는 역할에 한계를 보였을 정도로 만족할 만한 선도 사업을 수행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사서직 관장 보임 문제, 공공도서관의 명칭변경 문제, 공공도서관의 위탁문제 등에서 이렇다할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가칭)’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위상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욕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우선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 반드시 지녀야 할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국립중앙도서관은 선진국의 국가대표도서관의 주요기능 및 그동안 국내·외에서 발표된 <표 2> 에서와 같은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비교분석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상대적 우위에 있는 일’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과학기술의 발전과 도서관 주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기획기능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기능 및 역할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표 2>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비교분석⁴⁾

역할	선행연구	벵고어 회의 (1963)	마닐라 회의 (1964)	Humphreys (1966)	Kondakov (1966)	UNESCO (1970)	로잔회의 (1976)	최성진 (1982)	도서관법 (1994)	계(%)
국가문헌의 수집 및 보존		0	0	0	0	0	0	0	0	8(100)
국가서지작성/국가서지봉사		0	0	0	0	0	0	0	0	8(100)
외국문헌의 수집		0		0		0	0	0	0	6(75)
납본				0	0	0		0	0	5(63)
도서관 직원의 교육, 훈련		0		0			0	0	0	5(63)
도서관 상호협력의 증진			0	0			0	0	0	5(63)
국가차원의 도서관 및 국가정보 시스템 발전계획 수립		0		0			0	0	0	5(63)
국내 도서관에 대한 지도·지원			0	0				0	0	4(50)
도서관·문헌정보학의 조사·연구				0	0			0	0	4(50)
문헌의 국내외 교류				0				0	0	3(38)
국제프로그램에의 협력·참여							0		0	2(25)
평생교육지도, 지원/독서진흥									0	1(13)

2.2 국립중앙도서관 조직구조의 변천

2.2.1 일제치하 총독부도서관 조직구조⁵⁾

일제가 설립한 도서관들은 한국인에 대한 사상의 관찰 및 선도기관으로 전략한 사실은 이미 발표된 연구 논문에서도 밝혀져 있다. 그 당시 국가대표도서관 격인 총독부도서관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제치하에서 식민지 통치당국은 물론이고 도서관계 역시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수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압하며 오도하였다. 이러한 조선총독부도서관은 일본을 위한 식민지정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과 그 기능이 식민지정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그 당시 한국에 있어서 중앙도서관의 성격을 지니고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그 당시 시대상황과 지금의 우리나라 도서관계를 염두에 두고 아래의 조직구조를 살펴보면, 일제 후반부로 갈수록 도서관업무에서 사서의 전문성 제고 및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도서관계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도 보여주고 있다. 이를테면, 1941년-1942년의 조직구조에 나

4) 이은철, “21세기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54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서울 : 동 도서관, 1999. 10.15), p.13.

5) 이창세, 국립중앙도서관논고(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4), pp.3-8.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사(서울 : 동 도서관, 1973), pp.161-173.

타나는 기획반이라는 직제는 그 전후기간을 살펴보면 사회계 또는 사회반의 변형직제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총독부도서관의 조직도가 1943년부터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된 것을 볼 때 기획반에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기획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유추하여 해석할 수도 있다. 만약 기획반에서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도서관의 조직구조로서 이상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 가. 1925년 4월 : 관장, 3계(서무계, 사서계, 열람계)
- 나. 1934년 : 관장, 5계(서무계, 사서계, 보존계, 열람계, 사회계)
- 다. 1936년 4월 : 관장, 6계(서무계, 사서계, 보존계, 편찬계, 열람계, 사회계)
- 라. 1938년 : 관장, 4계(서무계, 사서계, 열람계, 사회계)
- 마. 1940년11월 : 관장, 4반(서무반, 사서반, 보존반, 열람반)
- 바. 1941년 7월 : 관장, 5반(서무반, 사서반, 기획반, 보존반, 열람반)
- 사. 1942년11월 : 관장, 6계(서무반, 수입반, 사서반, 기획반, 보존반, 열람반)
- 아. 1943년 4월 : 관장, 3부 7반
 - 제1부장-신서반, 고서반, 양서반,
 - 제2부장-열람반, 사회반
 - 제3부장-서무반, 회계반
- 자. 1943년 9월 : 관장, 3부 8반
 - 제1부장-신서반, 고서반, 양서반, 편집반
 - 제2부장-열람반, 사회반
 - 제3부장-서무반, 회계반
- 차. 1944년 3월 : 관장, 3부 8반
 - 제1부장-신서반, 고서반, 양서반, 편찬반
 - 제2부장-열람반, 사회반
 - 제3부장-서무반, 회계반

2.2.2 미군정기 국립도서관 조직구조 6)

미군정치하에서 새로이 개관된 국립도서관은 총독부도서관을 인수하여, 이를 기반으로 삼아 조직된 것이다. 해방 후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박봉석을 비롯한 관련 인사들이 도서관의 기반을 구축하는 준비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 결과 1945년 10월에 관장(이재욱)과 부관장(박봉석) 및 3부장(모두 박봉석 겸임), 서무과장과 대출과장으로 임명을 받은 인사들이

6) 이창세, 국립중앙도서관논고, pp.8-9.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사, pp.255-266.
 국립중앙도서관, 2003년도 국립중앙도서관연보(서울 : 동 도서관, 2004), p.8.

주축이 되어 국립도서관을 경영하면서 한편으로 그 조직체계를 확립하여 나갔다. 1947년 6월 국립도서관의 직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때, 그 조직구조는 관장, 부관장, 3부 11과, 국립도서관학교의 체제를 갖추었다.

이러한 국립도서관의 조직구조는 일제치하에서와 비교할 때, 도서관의 기능을 크게 3부문으로 구분하여 부단위 조직을 설치한 것은 차이가 없다, 하지만 특이한 사항은 부관장제의 신설과 국립도서관학교를 설립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부관장제의 신설은 도서관의 조직이나 경영이론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국립도서관학교의 설립 역시 전문직 사서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화 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하부조직의 변화로서 사서부 산하에 수서과를 독립시키고, 열람부 산하에 순회문고과를 설치한 점이다. 이 시기에 주목할 것은 국립도서관이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기능이나 역할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전통적 도서관에 입각한 활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의 사명과 비전을 실현하고자 노력한 부분이다. 특히, 미군정 치하에서 도서관의 지속적인 조직 확대에는 일제치하에서와 같이 자체적인 기획기능의 발휘가 수반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1946년-1947년 사이에 국립도서관은 총무부 산하에 기획과를 두고 자체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시기의 국가대표도서관이 도서관의 조직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보다도 더욱 훌륭한 체제를 확립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 가. 1945년 10월 : 관장, 부관장, 3부
 - 총무부-서무과
 - 사서부
 - 열람부-대출과
- 나. 1945년 11월 : 관장, 부관장, 3부 7과, 국립도서관학교
 - 총무부-서무과, 회계과, 분관과
 - 사서부-동서과, 서서과, 수서과
 - 열람부-대출과
- 다. 1946년 1월 : 관장, 부관장, 3부 7과, 국립도서관학교
 - 총무부-서무과, 회계과, 지도연락과
 - 사서부-동서과, 서서과, 수서과
 - 열람부-대출과
- 라. 1946년 11월 : 관장, 부관장, 3부 7과, 국립도서관학교
 - 총무부-서무과, 회계과, 기획과
 - 사서부-동서과, 서서과, 수서과
 - 열람부-열람과
- 마. 1947년 1월 : 관장, 부관장, 3부 10과, 국립도서관학교
 - 총무부-서무과, 회계과, 기획과

·사서부-동서과, 서서과, **고전과**, 수서과, **편찬과**

·열람부-열람과, **정비과**

바. 1947년 6월 : 관장, 부관장, 3부 11과, 국립도서관학교

·총무부-서무과, 회계과, **사업과**

·사서부-동서과, 서서과, 고전과, 수서과, 편찬과

·열람부-열람과, 정비과, **순회문고과**

2.2.3 문교부 소속의 국립(중앙)도서관 조직구조 7)

국립도서관의 위상은 그 조직구조로 볼 때 미군정기에 비해 대한민국 건국 후에 오히려 추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으로 인해 국립도서관의 모습은 더욱 초라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에는 그동안 국립도서관의 제반 업무를 주도한 이재욱 관장과 박봉석 부관장이 6·25 전쟁 중에 행방불명된 것을 커다란 이유로 들 수 있다. 더욱이 건국 후 국립도서관이 문교부 소속으로 있는 동안 자체적인 기획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지 못한 것도 도서관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시기동안 문교부는 국립도서관의 제반 문제를 도서관의 입장에서 보다는 소속 행정부처의 입장에서 다루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국립도서관은 1963년 도서관법의 제정 공포로 말미암아 그나마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때 국립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개명되었고 그 조직규모가 커지면서 비록 과단위기는 하지만 숫자상으로 부서가 늘어났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은 문교부 소속으로 거의 50년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와 같이 전체적인 조직구조에서 거의 변화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이 가로막힌 기관이었다. 나아가 이 시기 동안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조직구조 면에서 미군정 시기는 차치하더라도 일제치하에서 보다 열악한 체제를 지니고 있었다. 즉, 국립중앙도서관의 발전과정에서 이 시기는 소속 행정부처의 무관심 속에 간신히 명맥을 유지한 일종의 암흑기였다고 할 수 있다.

가. 1949년 5월 : 관장, 부관장, 6과, 국립도서관학교

6과-총무과, 동서과, 서서과, 고전과, 수서과, 열람과

*건국 후 국립도서관 조직 (대통령령 제17 호 1949. 5. 6)

나. 1957년 5월 : 관장, 3과, 국립도서관학교

3과-총무과, 사서과, 열람과

7) 이창세, 국립중앙도서관논고, pp.9-20.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사, pp.266-271.

국립중앙도서관, 2003년도 국립중앙도서관연보, pp.8-9.

법제처, 종합법령정보, <http://www.moleg.go.kr>

*수복 후 국립도서관 조직<대통령령 제1278호(1957. 5.31), 대통령령 제2646호(1966. 7.12)>

다. 1967년 1월 : 관장 5 과 분관

5과-서무과, 사서과, 지도협력과, 조사연구과, 열람과

*도서관법(1963) 공포: 국립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조직<대통령령 제2884호(1967. 1.25)>

라. 1974년 12월 : 관장 6 과 분관

6과-서무과, 수서과, 정리과, 지도협력과, 조사연구과, 열람과

*대통령령 제7423호(1974.12.21)

마. 1982년 8월 : 관장 5 과 1실, 분관

5과-서무과, 수서과, 정리과, 협력연구과, 열람과

1실-전산실

*대통령령 제10,885호 (1982. 8. 7)

2.2.4 문화관광부 소속의 국립중앙도서관 조직구조 8)

국립중앙도서관이 문교부에서 새로운 행정부처로 발족된 문화부로 그 소속부처를 변경하면서 시작된 시기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1991년 도서관진흥법의 제정·공포와 함께 조직구조를 확대 개편하였다. 이 시기에 국립중앙도서관은 건국과 더불어 조직구조에서 사라졌던 부단위 조직을 부분적으로 되살려 ‘관장, 2부, 7과, 1담당관, 분관’ 체제를 갖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구조는 일제치하 후반부터 건국 전까지의 도서관 체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 후 1994년에 도서관진흥법을 개정하여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제정·공포되면서, 문화부도 문화체육부로, 그리고 문화관광부로 부처명이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립중앙도서관은 큰 틀의 조직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부서명을 바꾸는 정도로 변화를 가져왔다.

이 시기 역시 국립중앙도서관이 문화부 소속으로 재출발을 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자체적인 기획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갖지 못하였다. 즉, 문화부(문화체육부, 문화관광부)도 국립중앙도서관이 문교부 소속으로 있을 때와 같이 도서관의 제반 문제를 도서관의 입장에서 보다는 소속 행정부처의 입장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다행히도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제정중인 ‘도서관법’에서 건국 후 사라졌던 자체적인 기획기능을 되찾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한다. 아마도 국립중앙도서관이 이러한 기획기능을 법규적으로 부여받고, 이에 합당한 부서를 설치한 후 우수한 인력을 선발·배치하면 분명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8) 국립중앙도서관, 2003년도 국립중앙도서관연보, pp.8-9.
법제처, 종합법령정보, <http://www.moleg.go.kr>

- 가. 1991년 4월 (문화부) : 관장, 5과 1실, 분관
직전의 문교부 소속시 직제와 동일 <대통령령 제13343호(1991. 4. 8)>
- 나. 1991년12월(문화부),1993년10월(문화체육부): 관장, 2부, 7과, 1담당관, 분관
·지원협력부-서무과, 지도협력과, 문화연수와, 전산담당관
·열람관리부-열람봉사과, 납본과, 자료조직과, 서지표준과
*도서진흥법(1991) 공포
*대통령령 제13520호(1991.12.17), 대통령령 제13989호(1993.10.17)
- 다. 1997년 7월 (문화체육부) : 관장 2부 7과 1담당관 분관
·지원연수부-서무과, 지원협력과, 사서연수와, 전산담당관
·열람관리부-열람봉사과, 납본과, 자료조직과, 서지표준과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1994) 공포
*대통령령 제15421호(1997. 7. 7)
- 라. 1998년 2월 (문화관광부) : 관장, 2부, 6과, 1담당관 분관
·지원연수부-서무과, 지원협력과, 사서연수와, 정보화담당관
·열람관리부-열람봉사과, 납본과, 자료조직과
*대통령령 제15722호(1998. 2.19)
- 마. 2001년 9월 (문화관광부) : 관장 2부 6과 1담당관 학위논문관
·지원연수부-서무과, 지원협력과, 사서연수와, 정보화담당관
·열람관리부-열람봉사과, 납본과, 자료조직과
*대통령령 제17372호(2001. 9.29)
- 바. 2004년 현재 : 직전의 직제와 동일

3. 선진국 국가대표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선진국 국가대표도서관들과는 달리 도서관의 사명이나 비전 등을 정립하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조사를 해보면, 1924년 조선총독부도서관이 사명을 천명하고 있을 뿐, 그 이후 국립도서관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은 사명을 공시하지 않고 도서관의 소개란 등을 통해 임무 등을 밝히고 있는 정도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최근 홈페이지를 보면, 그 소개란이나 관장의 인사말 등에서 사명이나 비전으로 유추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아래와 같이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국가 대표 도서관으로서 국가의 지적문화유산을 총체적·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여 이를 후세에 전승시키는 문화전달자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문헌정보

의 충고고입니다. ……21세기 정보시대를 선도하는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며 종합문화공간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⁹⁾

이와는 달리 선진국의 국가대표도서관들은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체계적으로 사명과 비전 등을 설정하고 있다. 바람직한 도서관의 사명과 비전은 누구를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이용자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 어떠한 역량으로 이러한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또한 그것들은 서로 상관관계를 지니면서 도서관의 주변 환경, 구성원들의 기대, 도서관의 능력, 이용자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미래 지향적인 목적을 포함해야 한다.

도서관의 관장이나 경영관리자는 아무리 훌륭한 사명과 비전을 설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성과로 연결되리라 기대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국가대표도서관의 경영관리자는 자신의 사명이나 비전을 조직의 그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조직의 사명과 비전을 자신의 그것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도서관의 구성원들이 이러한 사명이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다음의 내용들은 우리나라와 비교적 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의 국가대표도서관에서 공시하고 있는 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등을 정리한 것이다.

싱가포르국가도서관¹⁰⁾

싱가포르국가도서관의 사명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친절한 사회를 증진하기 위해 국민의 학습능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싱가포르국가도서관의 목적은 싱가포르 국민에게 편리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유용한 세계수준의 도서관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국회도서관의 비전¹¹⁾

사명 및 역할 : 일본국회도서관은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헌법에서 명시한 국제평화와 일본의 민주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인쇄 자료에서 디지털정보까지, 광범위한 규모로 일본국민의 지적활동의 산물을 수집하고 그리고 일본국민의 공유자산으로서 정보자원을 구축한다.

(2) 국가정책 문제에 관해 연구·분석서비스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활동을 지원한다.

(3) 행정부나 사법부 및 일본국민에게 지금부터 미래에도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자원への 접근을 보장한다.

9) <http://www.nl.go.kr/>

10) http://www.lib.gov.sg/AboutUs/abtUs_overview.asp

11) 우즈미 케이야, “21세기를 향한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54주년 기념 세미나 자료집 (서울 : 동 도서관, 1999. 10.15), pp.42-52.

http://www.ndl.go.jp/en/aboutus/vision_2004.html

일본국회도서관은 이를 위해 4가지 우선분야를 명시하고 있다.

- (1) 입법지원기능의 강화, (2) 전자문서관의 구축, (3) 정보자원에 대한 접근 증진, (4)협력 증진

캐나다국립도서관의 사명선언서¹²⁾

캐나다국립도서관은 캐나다사람들이 그들의 출판유산을 통해 조국과 스스로를 알 수 있도록 세계적인 부류의 국가적 자원을 구축하고, 그리고 국가적 또는 국제적 정보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는데 공헌하는 것이다.

미국의회도서관¹³⁾

미국의회도서관의 사명은 그 자원을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이용가능하고 유용하도록 하며, 그리고 미래의 세대를 위해 범세계적 지식과 창조성 있는 집서를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미국의회도서관은 이를 위해 4가지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있다.

- (1) 미국의회도서관은 지식과 지적창조물을 미국의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 미국의회도서관은 의회와 국가의 현재 및 미래의 이용을 위해 수집·조직·보존·보호·유지한다.
- (3) 미국의회도서관은 그 집서를 미국의회, 미국정부, 국민 순으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 (4) 미국의회도서관은 이러한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창조적인 일과 지적인 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도서관의 국가의 복리와 장래 발전에 대한 공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기본적인 도서관 자원에 해석적·교육적 가치를 추가한다.

스콧랜드국가도서관¹⁴⁾

스콧랜드국가도서관의 사명 및 비전은, 평생교육, 연구와 학문, 포괄적인 집서로 범세계적인 정보접근을 고무하고 증진시키며, 스콧랜드의 기록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세계의 아이디어와 문화에 대한 접근을 증진시킴으로써, 삶과 사회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스콧랜드국가도서관과 직원의 핵심적 가치: (1)봉사, (2)우수성, (3)학습, (4)전념

스콧랜드국가도서관은 이러한 사명 및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가지 주요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 (1) 스콧랜드 국민과 그 밖의 세계 사람들을 위해, 스콧랜드의 포괄적인 기록지식, 문화, 역사 관련 집서에 대해 접근을 이루어 내고 보존하며 보장한다.
- (2) 특히 스콧랜드 국민을 위해 세계 기록지식, 문화, 역사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 (3) 스콧랜드국가도서관의 주요 역사적 유산이나 집서에 대한 접근을 보전, 증진, 보장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적절한 곳에 추가한다.
- (4) 연구와 학문을 고무하고 지원한다.

12) <http://www.nlc-bnc.ca/10/8/a8-1007-e.html>

13) <http://www.loc.gov/about/history/>

14) <http://www.nls.uk/professional/policy/printstrategy.html>

(5) 스코틀랜드에서 도서관 및 정보부문을 위해 적절한 지원과 지도력을 제공한다.

영국국가도서관¹⁵⁾

영국국가도서관의 사명은 학문, 연구 및 혁신을 위해 지식의 추구를 촉진하고,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 그 장서에 대한 가장 폭넓게 할 수 있는 접근성을 고무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기폭제로서 (1)인터넷 사용의 확산, (2)이용자들의 욕구 증가, (3)출판물 가격의 인상, (4)출판물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시하고 있다.

영국국가도서관의 비전 : 전 세계의 지적, 과학적, 문화적 유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국가도서관의 장서와 다른 위대한 장서는 개개인의 가상서고-직장, 학교, 대학, 가정-에서 접근될 것이다.

가능전략 : (1)이용자 중심, (2)동반자 관계, (3)웹에서의 기본 전략들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전략 : 가능전략을 기반으로 (1)장서전략, (2)접근전략을 세우고 있다.

4.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의 재정립

4.1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역할 및 전략

국립중앙도서관은 1963년 도서관법의 제정 공포로 국가대표도서관의 지위를 인정받기 시작하여, 1991년 문교부(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문화부(현 문화관광부)로 소속 행정부처가 변경되면서, 1991년 도서관진흥법 및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제정 공포로 완전한 국가대표도서관의 위상을 확보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상기 법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¹⁶⁾

- (1) 국내외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공중이용의 이용
- (2) 국내자료의 제출관리
- (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의 유통
- (4)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 (5)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제 및 도서관협력망의 총괄
- (6)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 (7) 다른 도서관 및 문고의 업무·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지도·지원

15) <http://www.bl.uk/about/policies/mission.html>

16) 한국도서관협회, 한국 도서관 법령집(서울 : 동 협회, 1998).

- (8)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시
- (9) 도서관에 관한 조사 연구
- (10) 도서관 및 문고의 직원에 대한 연수
- (11)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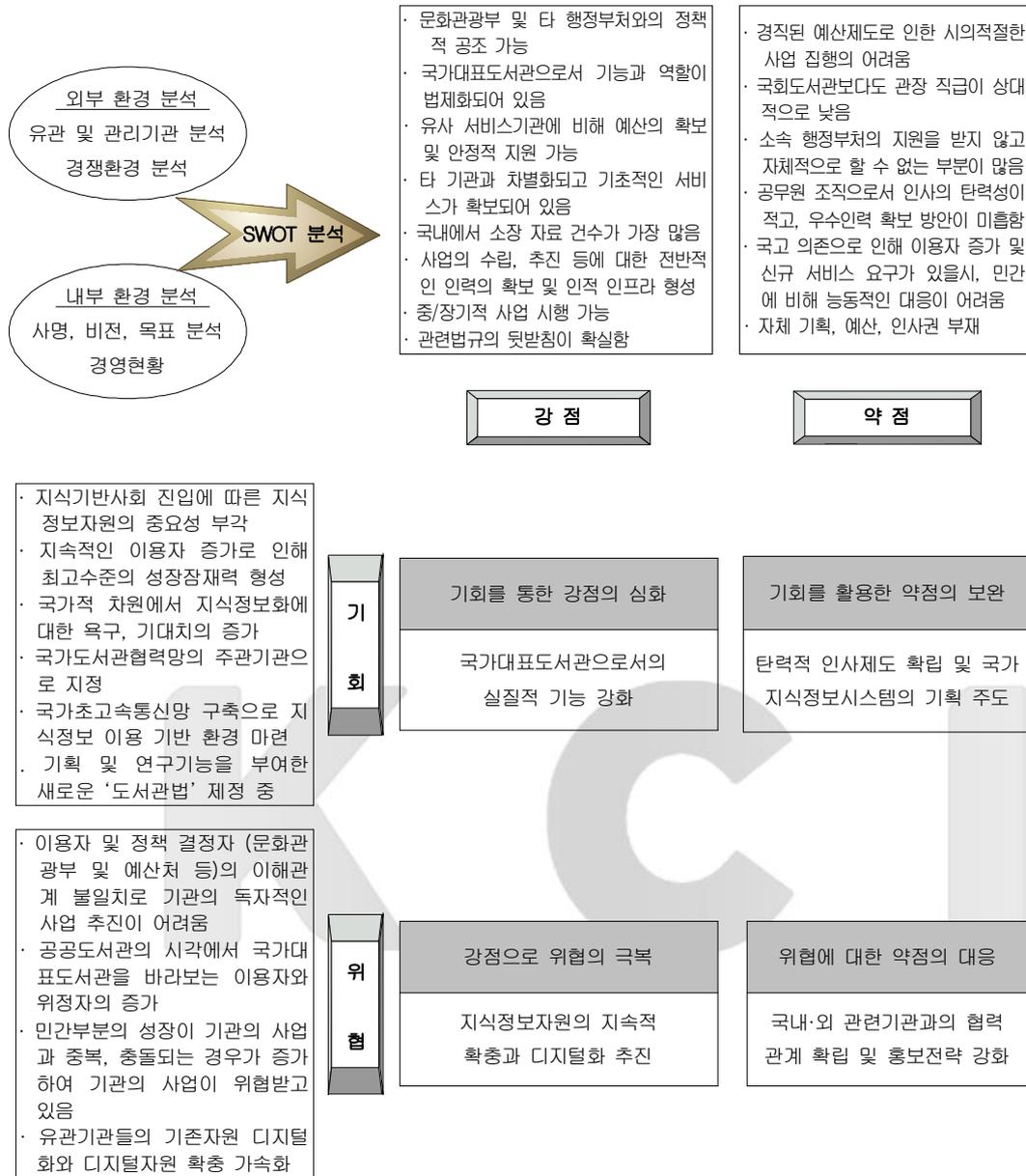
이러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은 <표 1>에서와 같이 관련 법규를 개정할 때마다 그 항목수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개정 논의 중인 ‘도서관법(초안)’을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문구를 수정한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시각장애인 등 지식정보소외계층의 정보서비스에 필요한 업무 개발·지원’이라는 역할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¹⁷⁾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은 지금까지 대내·외로 공표하거나 나름대로 설정한 분명한 사명이나 비전을 정립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수행해야 할 역할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역할의 사업들을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모두 관심을 가지고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핵심사업에 치중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다른 도서관이나 민간 및 외부 기관에 위탁하거나 협력사업을 통해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테면, 사서직 교육훈련이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등의 기능은 전문적인 민간조직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위탁사업에 대한 점검과 처리 과정의 확인 업무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새로운 역할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의 필수적 기능인 국가문헌의 수집, 국가서지의 작성 등과 같은 역할을 방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기관 존립의 문제로 까지도 비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국가의 핵심기반시설로서 등장하면서 지식정보와 정보기술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교육과 문화 및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국가대표도서관으로 발돋움 하고자 국립디지털도서관(가칭)의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중앙도서관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추진사업들을 세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나아갈 좌표를 설정하고 수정하는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다음의 <그림 1>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을 SWOT 분석기법을 통해 개략적으로 기관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을 밝히고, 기회를 통한 강점의 심화, 기회를 활용한 약점의 보완, 강점으로 위협을 극복, 위협에 대한 약점의 대응 전략을 도출한 것이다.¹⁸⁾

17) 문화관광부, 2004년도 제1차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료(서울 : 문화관광부, 2004. 5. 6), pp.8-27.

18) 박동철,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 체계 구축 및 전략적 연계방안 연구(서울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3)를 참조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실정에 맞게 수정함.



<그림 1> 국립중앙도서관의 추진전략 도출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기회를 통한 강점의 심화 전략으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건국이후 지금까지 부단하게 노력하여 많은 발전을 이룩하여 왔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그 조직구조상 일체치하 후반부나 미군정 시기의 체제에도 미치지

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은 우리나라 도서관 상황이 열악하여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이제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에 충실해야 할 시점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표 2>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가대표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은 인력 및 예산 등의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국가적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역할로 국한하여 충실히 추진하는 것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올바른 발전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국립중앙도서관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능 및 역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아날로그/디지털 납본제도에 의한 국가 문헌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저작물과 외국에서 출판된 한국 관련 저작물, 그리고 각 국별 또는 학문별 주요 참고도서류를 수집 정리·보존해야 한다. (2) 이를 기반으로 국가서지를 작성하여 국내·외에 제공해야 한다. (3) 국가지식정보시스템을 계획하고 그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적극 참여하면서 도서관 부문에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4) 국제 지식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개선하는데 참여하고, 도서관 관련 국제기구에 참가하여 국제적 수준에서 자국의 도서관과 도서관이용자를 효율적으로 대표해야 한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기회를 활용한 약점의 보완 전략으로 탄력적 인사제도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가지식정보시스템의 기획을 주도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법규적으로나 사회적 인식면에서 볼 때 그 중요성과 위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회도서관보다도 관장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그러한 중요성과 위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내부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수년간 하나의 화두였던 ‘디지털’ 바람과 함께 국가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통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의 목소리는 그리 크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제정할 때 어떠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법의 시행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그 법에서 가장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는 기술지원 기관에 불과한 한국전산원의 사례는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항이다. 이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서처럼 국가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통에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주변 환경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우수인력의 확보를 위한 탄력적인 인사제도를 갖고 있지 못한 것도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정보시스템의 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할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강점으로 위협을 극복하는 전략 차원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지속적인 확충, 그리고 지식정보자원과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가장 강점인 지식정보자원의 양적 확대는 납본제도 등에 의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로 인해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장자원에 있어서 국내 모든 도서관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립중앙도서관이 현실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성장·발전하기에는 위협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선진국의 국가대표도서관들과는 달리 소속 행정부처나 위정자의 말 한마디에 기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그리고 국내 지식정보 유관 기관들이 지식정보자원 및 서비스를 디지털화하면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국립중앙도서관의 업무를 대체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전통적인 종이매체인 아날로그정보자원을 기반으로 디지털정보자원을 착실히 추가해 나가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를 바탕으로 지식정보자원 및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한다. 이는 아직도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모든 지식정보가 디지털로 유통되고 있는 비율이 학문 분야에 따라 높고 낮음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10%를 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은 위협에 대한 약점의 대응 전략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내 외 관련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확립하고, 아울러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 국립중앙도서관은 선진제국이나 경쟁국들에 비해 열악한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총량을 제고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통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지식정보유통체제의 비전 수립과 함께 특성별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체제 구축이나 연계 방안을 확립해야 한다.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은 현 단계에서 전문 인력이나 보유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식정보자원 유통기관들 사이에 역할 분담 등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다. 이는 한 국가의 지식자산화 및 지식강국화는 유능한 연구인력, 우수한 연구인프라, 그리고 최적의 지식정보자원이 투입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연구생산성이 제고되고 지식축적량이 누적될 때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지식정보자원은 모든 연구개발의 동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연유로 세계 각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지식정보유통체제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인프라로 간주하고 지식정보자원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선진제국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자국 국민들의 지식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주변 국가들과 함께 그 세부전략들을 수립하거나 자국내 유관기관들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국립중앙도서관은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다른 행정부처 소속의 지식정보 관리기관들과의 공존 및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국가차원에서 선진국의 지식정보 및 문화 예측화를 지양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면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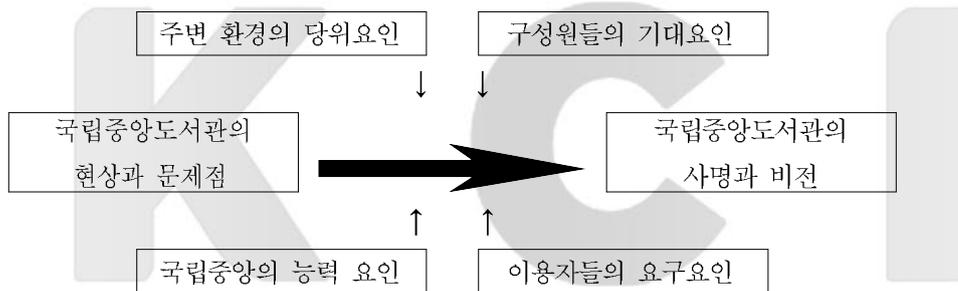
4.2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비전의 수립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이나 비전은 사회에서 기관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보편적으로 나타낸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신조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은 사회적으로

이와 관련되는 사람들에 대해 천명하고 있는 일종의 서비스 활동 방침의 계약이다. 그리고 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특정한 시기에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의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 활동의 목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명과 비전은 현실의 연장선이 아닌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영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시대를 초월한 장기적인 높은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도전할 목표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이념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릴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비전은 과거의 환경이나 실적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의 환경을 충분히 분석·예측하여 앞으로 추구할 이상적인 기관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수립은, 우선 기관 자체의 현상과 문제점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후에 기관의 강점과 약점 및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비전으로서 바람직한 도서관의 모습을 설계하고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러한 기관의 현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명과 비전을 설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로는 다음의 <그림 2>에서와 같이 ①국립중앙도서관 주변 환경의 당위요인, ②구성원들의 기대요인, ③국립중앙도서관의 능력요인, ④이용자들의 요구요인을 들 수 있다. 19) 이들의 상호 관련성 및 각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명과 비전 수립의 개략적인 모형

첫째, 국립중앙도서관 주변 환경의 당위요인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미래에 이상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 조직의 외부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바뀌고 이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정보유통기관들, 또는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등이 모두 변화할 때 국립중앙도서관은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주변 환경의 변화에 당위적으로 따라가면서, 기관 내·외부에 다가오는 기회와 위협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19) 광동철, “도서관의 사명 및 이상 수립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3. 6), pp.267-289.
 광동철, 지식정보사회와 정보관리(서울 : 문음사, 2003), pp.59-95.

둘째, 국립중앙도서관 구성원들의 기대요인은 기관 내부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생각하며, 어떠한 국립중앙도서관이 되기를 바라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기대와 희망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소속 행정부처 또는 최고경영자의 의도 또는 의지이다. 물론 최근 들어 이들 뿐만 아니라 전체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하고 참여를 강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들이 어떠한 조직을 만들기를 바라며, 국립중앙도서관이 어떻게 발전하기를 희망하는 가를 파악하여 함께 노력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의 능력요인은 기관이 앞서 기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립중앙도서관이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구성원들이 그렇게 나아가고 싶다하더라도, 이를 실천할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나아갈 방향과 목표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은 모든 구성원과 기관 내부에 그동안 축적된 저력과 잠재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항상 걸림돌로서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존재하고 있다. 즉, 상·하직원간, 부서별, 사서와 비사서간, 세대간, 남녀간 등의 갈등요인들이 발전을 가로막기도 한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자들의 요구요인은 이용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무엇을 얻기를 바라며, 제공되고 있는 정보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며, 추후 어떠한 기관이 되기를 바라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며 그 내용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최근 들어 이용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이용자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에 반영해야 하는 추세이다.

5. 결론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서관 관련 사업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사업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 차원의 실천력 부족과 함께 부처별 또는 기관별 이기주의 및 주도권 경쟁 등의 탓으로 복잡하게 얽혀 국가차원에서 예산과 인력 및 자원의 중복과 낭비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선진제국이나 경쟁국들에 비해 열악한 국가 지식정보자원의 총량을 제고하고,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외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및 유통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 지식정보유통체제의 사명 및 비전 수립과 함께 특성별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체제 구축이나 연계 방안의 제시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의 조직규모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너무도 그 규모가 작고 단순하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열악한 국가대표도서관을 지니고 있다. 거의 10년 전의 조사에서 미국은 7국 79과에 정규직원이 5,300명에 이르고, 일본은 관장·부관장 외에 7국 39과에 850명, 영국이 5국 20과에 1,300명과 같은 방대한 조직규모로 국가대표도서관을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²⁰⁾ 이는 선진국들이 국가대표도서관을 국가대표도서관답게 경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결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찍부터 국제사회에서는 IFLA, UNESCO 등 도서관 관련 기구들이 국가정보시스템이나 국제정보시스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가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침, 권고안들을 제시하여 왔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은 이 시기에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국가대표도서관 관련 사항들을 지금도 논의 중에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속 행정부처나 위정자들이 국립중앙도서관의 발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도서관계 인사들도 함께 국가대표도서관의 발전에 건인차가 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전술한 <그림 1>에서와 같이 현재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의 내·외부 환경에 대한 개략적인 분석 결과는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으로서 강점(S)과 약점(W), 기회(O)와 위협(T) 요인을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기관은 조직의 강점을 기회로 활용하려면 SO전략을, 역으로 강점을 위협에 대한 극복의 수단으로 삼으려면 ST전략을 선택한다.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활용하려면 WO전략을,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WT 전략을 선택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분석을 더욱 세밀히 실시한 후 지식정보관리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떠한 사업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테면,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갖는 지식정보관리기관으로 성장·발전하고자 한다면 약점에 대응하고 위협을 극복하면서 강점과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다음과 같이 복합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의 내·외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명과 비전을 정립하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백화점식 업무추진이 아닌 반드시 담당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연구·기획 부서를 설치하고, 그 산하에 ‘도서관 및 문헌정보학연구소’를 설립·운영해야 한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은 탄력적으로 우수한 전문가의 채용과 배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인

20) 조원호,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조직의 발전방향,”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50주년 기념논문집(서울 : 동서문고, 1995), p.66.

21) 이병목 역, “국가 및 국제정보시스템에 있어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60주년 기념논문집(서울 : 동서문고, 1984), pp.243-272.

사제도를 혁신해야 하며, 국가 지식정보시스템에서 중추적인 위상을 갖고 관련 사업의 기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넷째, 국립중앙도서관은 지식정보자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국가차원에서 선진국의 지식정보 및 문화 예속화를 지양해야 한다.

다섯째, 국립중앙도서관은 북한을 포함한 국내·외 지식정보자원관리기관과의 협력 관계를 확립함과 동시에 국제정보시스템에서 국가를 대표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

여섯째, 국립중앙도서관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유통 기반의 확충을 통해 대국민 및 대정부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